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

문규란*, 이춘엽**, 주아영***, 곽나임****, 정혜림**

*부산광역시치매센터 작업치료사,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부산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준요양병원 작업치료실 작업치료사

국문초록

목적: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241명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과 섭식 태도 검사(Eating Attitude Test; EAT-26)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는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감각처리 특성 중 등록저하와 섭식 통제, 감각회피와 폭식 및 음식물두를 제외하면, 감각처리 특성에 따라 섭식 태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등록저하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추구가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하거나 (매우) 많은 경우 모든 섭식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민감성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회피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감각처리 특성에 따라 섭식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반 여성들의 섭식 태도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감각통합 중재를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감각처리, 섭식 태도, 여성

1. 서론

섭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몸을 움직이게 하고(Kim, 2000), 먹는 즐거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행동

이다(So, 2000).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매체는 마른몸매를 이상형의 여성상으로 선호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통한 섭식형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Lee et al., 2011), 현대의 산업사회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등으로 심각한 섭식태도 문제를 초래하고

교신저자: 이춘엽(bommm81@hanmail.net)

접수일: 2020.04.17.

|| 심사일: 2020.05.21.

|| 게재확정일: 2020.06.19.

있다(Kang et al., 2005). 즉, 생리적 요인이나 배고픔과 포만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기능의 장애로 섭식장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Lee, et al., 2011),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폭식이나 식사를 거르는 절식 등의 섭식태도가 유발되기도 한다(Kang et al., 2005).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율과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 모두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유병율은 여성(25.6%)에 비해 남성(41.6%)이,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은 남성(9.8%)에 비해 여성(17.8%)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러한 실태는 현대의 성인에게 영양과잉과 부족이 공존하는 영양불균형의 양극화 문제가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Kwon, 2014).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날씬함에 대한 더 큰 사회적 압박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의 섭식 태도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다(Hwang, 2009; Timothy & Stacy, 2013). 섭식 장애의 발생빈도는 젊은 여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Cheon, 2007). 마른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정상시의 섭식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섭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Jeong & Lee,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임상집단인 연구 대상자의 82%가 체중조절 중이거나 과거에 체중조절의 경험이 있었고 체중조절 방법으로는 73.1%가 섭식을 제한하였다(Seong, 2005).

부정적인 섭식 태도는 정상적인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섭식 행동으로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거나 음식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식 행동, 다른 사람에 비해 확연히 많은 양의 음식을 단시간 내 섭취하는 폭식 행동으로 나타난다(Garner & Garfinkel, 1980). 부정적인 섭식 태도는 골밀도 감소, 생식기능의 저하, 무월경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심리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erdan & Koff, 1997; Shroff & Thompson, 2006). 그러나 섭식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숨기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잘못된 섭식 태도에 의해 심각한 신체 및 심리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Nakai, Nin, & Noma, 2014).

작업치료사는 섭식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신념과 습관, 요리와 영양에 대한 교육, 긍정적인 신체상의 발달을 위한 표현 활동과 감각운동 활동, 일상생활기술에서 평가와 훈련 등을 시행한다(Chang et al., 2017). Rockwell (1990)은 작업치료사가 섭식 장애 대상자에게 예술치료, 수공예, 요리, 메뉴 계획, 스트레스 관리 훈련, 집단토의 및 활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섭식 태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섭식 장애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신체인지의 왜곡으로 인한 불만족 등을 보고하였다(Cha, 2017; Son, 2008; VanBoven & Espelage, 2011). 그러나 감각자극에 대해 등록의 어려움이 있거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처리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나 음식의 질감이나 종류를 제한하여 먹는 편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Fox, Meyer, & Rotatori, 1989; Schaaf, Miller, Seawell, & O'Keefe, 2003), 이러한 감각처리 특성이 섭식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전반적 발달장애아동(Kang, Chang, & Kim, 2011) 혹은 조산으로 출생한 영·유아(Kim, Kim, Chang, & Hong, 2019)의 감각처리 능력과 섭식 태도를 다룬 선행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아동 대상의 연구로 일반 성인의 감각처리와 섭식 태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섭식 태도의 특성이 대상자의 심리적 상황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부정적인 섭식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감각처리 중재가 포함된 작업치료의 시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일반 여성의 섭식 태도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62명의 일

반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자로, 연구에 대한 목적과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연구에 동의한 일반 여성이었다.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거나,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누락되거나 불완전하여 자료처리가 곤란한 21부를 제외한 총 241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Brown과 Dunn (2002)이 감각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도구로서 6개의 영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감각 문항은 맛/냄새 처리 8개, 움직임 처리 8개, 시각 처리 10개, 촉각 처리 13개, 활동 수준 10개, 청각 처리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이다. “1점=전혀, 2점=가끔, 3점=종종, 4점=자주, 5점=항상”으로 점수가 주어지며 검사는 10~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총점을 구한 후, 총점을 사분위 요약 차트에 표시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Jung (2016)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일반 성인과 조현병에 대한 구별타당도가 검증되었고, 내적일치도는 .66-.8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91범위이다 (Jung, 2016).

2) 섭식 태도 검사(Eating Attitude Test; EAT-26)

섭식 태도 검사는 Garner와 Garfinkel (1980)이 만든 것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의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에서 흔히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거식이 11문항, 폭식과 음식물두가 7문항, 섭식 통제가 8문항으로 총 26문항이다. 거식은 체중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기피하고 날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몰두와 관련되고, 폭식과 음식물두는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생각을 암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섭식 통제는 섭식에 대한 자기 통제와 체중 증가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각된 압력과 관련된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6점 척도로, “3점=항상 그렇다, 2점=매우 자주 그렇다, 1점=자주 그렇다, 0점=가끔 그렇다, 거의 드물다, 전혀 아니다”로 점수가 주어져 3점 척도로 변환하여 산출하며, 문항 25번은 역으로 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Rhee 등(1998)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고, 내적일치도는 .83이다.

3. 연구절차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얻은 이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 방식은 네이버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자가 기록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지에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가 연구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의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22.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감각처리 특성과 섭식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31.73세였고, 평균 신장은 161.58cm, 체중은 56.23kg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1.54였다. 미혼이 65.1%로 기혼보다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Variable | Frequency (%) | $M \pm SD^*$ (min-max) |
|------------------|---------------|-------------------------|
| Age | | 31.73 ± 11.34 (16-59) |
| Height | | 161.58 ± 5.68 (148-179) |
| Weight | | 56.23 ± 8.37 (41-94) |
| BMI [†] | | 21.54 ± 2.95 (16-35) |
| Marital status | Single | 157 (65.1) |
| | Married | 84 (34.9) |

* $M \pm SD$: Mean ± Standard Deviation, [†]BMI: Body Mass Index

2. 대상자의 감각처리 특성

감각처리 특성은 등록저하(56.0%), 감각민감성(61.0%), 감각회피(64.3%)에서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함이 가장 많았고, 감각추구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적음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섭식 태도 특성

섭식 태도의 평균은 각 하위 영역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누었을 때, 폭식과 음식물두(0.52), 거식(0.47), 섭식 통제(0.2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점은 10.17점이 었다(Table 3).

Table 2.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 Variable | Categories | Frequency (%) | $M \pm SD^*$ |
|-----------------------------|----------------------------|---------------|--------------|
| Low registration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3 (1.2) | 30.40 ± 7.09 |
| | Less than most people | 76 (31.6) | |
| | Similar to most people | 135 (56.0) | |
| | More than most people | 26 (10.8) |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1 (0.4) | |
| Sensory seeking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31 (12.8) | 37.07 ± 8.21 |
| | Less than most people | 144 (59.8) | |
| | Similar to most people | 65 (27.0) | |
| | More than most people | 1 (0.4) |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0 (0.0) | |
| Sensory processing patterns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1 (0.4) | 36.59 ± 8.35 |
| | Less than most people | 15 (6.2) | |
| | Similar to most people | 147 (61.0) | |
| | More than most people | 56 (23.2) |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22 (9.2) | |
| Sensory avoiding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2 (0.8) | 35.08 ± 7.97 |
| | Less than most people | 20 (8.3) | |
| | Similar to most people | 155 (64.3) | |
| | More than most people | 53 (22.0) |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11 (4.6) | |

* $M \pm SD$: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3. Eating attitude characteristics

| Variable | Categories | $M \pm SD^*$ | Number of items | $M \pm SD^*$ /Number of items |
|-----------------|-------------------------------|--------------|-----------------|----------------------------------|
| Eating attitude | Anorexia | 5.15 ± 4.34 | 11 | 0.47 ± 0.39 |
| |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 3.66 ± 2.81 | 7 | 0.52 ± 0.40 |
| | Eating control | 2.15 ± 2.42 | 8 | 0.27 ± 0.30 |
| | Total | 10.17 ± 8.29 | 26 | 0.39 ± 0.32 |

* $M \pm SD$: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4. The difference in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 Variable | Anorexia | <i>t</i> or <i>F</i> |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 <i>t</i> or <i>F</i> | Eating control | <i>t</i> or <i>F</i> |
|---------------------|-----------------------------------|----------------------|-----------------------------------|----------------------|-----------------------------------|----------------------|
| | <i>M</i> ± <i>SD</i> [†] | | <i>M</i> ± <i>SD</i> [†] | | <i>M</i> ± <i>SD</i> [†] | |
| Low registration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32±.47 | .17±.44 | | .12±.33 | |
| | Similar to most people | .41±.49 | .36±.51 | 11.56** | .16±.39 | 9.36**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67±.56 | .65±.57 | a<c, b<c | .27±.49 | a<c, b<c |
| Sensation seeking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39±.49 | .33±.49 | | .14±.34 | |
| | (Much) similar to most people | .61±.56 | .58±.60 | 15.77** | .32±.54 | 10.01** |
| Sensory sensitivity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25±.45 | .13±.50 | | .19±.40 | |
| | Similar to most people | .42±.49 | .35±.51 | 8.02** | .14±.35 | 3.73*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56±.56 | .53±.56 | a<c | .28±.52 | 3.49* |
| Sensory avoiding | (Much) less than most people | .19±.40 | .19±.48 | | .11±.32 | |
| | Similar to most people | .43±.50 | .37±.52 | 10.88** | .16±.36 | 1.15 |
| | (Much) more than most people | .62±.56 | .53±.54 | a<c | .28±.53 | 6.12* |

* $p<.05$, ** $p<.01$, [†] $M\pm SD$: Mean±Standard Deviation

4.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

감각처리 특성 중 등록저하와 섭식 통제, 감각회피와 폭식 및 음식물두를 제외하면, 감각처리 특성에 따라 섭식 태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또한 등록저하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추구가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하거나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 섭식 통제의 모든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민감성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회피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 여성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를 파악하여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섭식 태도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감각통합 중재를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여성의 섭식 태도는 10.1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15.74점 (Jeon, 2014)과 15.60점(Byun, Lee, & Lee, 2014)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섭식 태도가 낮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반 여성으로 평균 나이가 31.73세이고, 이에 반해 선행연구에서는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은 여성일수록 날씬한 몸에 대한 부러움과 과체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섭식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Dalley &

Buunk, 2011).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등록저하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추구가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하거나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 섭식 통제의 모든 섭식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각민감성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회피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학적 역치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는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경우 행동적 반응이 수동적인 감각민감성은 폭식 및 음식물두가, 행동적 반응이 능동적인 감각회피는 거식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감각민감성은 감각자극에 매우 잘 반응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각사건의 인지를 잘하며 타인과 함께 있는 동안 냄새, 움직임, 소리와 같은 것에 주의가 쉽게 빼앗기는 성향이 있다(Hong & Lee, 2018). 또한 감각민감성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서장애와 관련되어 있는데(Neal, Edelman, & Glachan, 2002), 폭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McCabe & Vincent, 2003) 감각민감성의 이러한 정서가 폭식 및 음식물두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차이는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조산아와 일반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섭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감각민감성과 감각처리 하위영역에서는 구강감각 처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Kim, Kim, Chang, & Hong, 2019).

감각회피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감각경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한다(Dunn, 2001). 선행연구에서 AASP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였는데, 감각회피에 해당하는 '익숙한 음식만 먹는다.'의 항목에서 여성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Nam & Lee, 2010).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미각과 후각의 구별 및 미세한 감각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감각처리에 있어 낮은 자극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며(Halpern, 2000), 영양섭취 부족자의 비율이 남성(9.8%)에 비해 여성(17.8%)이 더 높은 것을 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러한 원인으로 감각회피가 거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감각처리 특성에 따라 섭식 태도가 달라지므로 일반 성인에게 섭식 태도와 관련된 감각처리 중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등록저하나 감각추구가 심한 경우 맛과 냄새가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바삭한 과자나 껌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감각회피와 감각민감성이 심한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맛과 냄새를 시작으로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할 수 있다(Brown & Dunn, 2002; Chang et al., 2017). 이를 통해 부정적인 섭식 태도를 가진 대상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감각 중 맛과 냄새 처리와 관련된 중재를 포함해 다양한 감각의 감각처리 중재를 시행한 Lee, Lee와 Kim(2016)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본 내용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섭식 태도가 부정적인 대상자에게 감각처리 특성을 조사하여 각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감각처리 중재가 포함된 작업치료를 시행한다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온라인 설문으로 자가 기록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객관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가 연구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하여 의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자의 감각처리 특성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중재방법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여성의 감각 처리에 따른 섭식 태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 여성 241명으로 평균연령 31.73세, 평균 신장 161.58cm, 평균 체중 56.23kg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21.54이다. 연구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처리 특성 중 등록저하와 섭식 통제, 감각회피와 폭식 및 음식물두를 제외하면, 감각처리 특성에

따라 섭식 태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둘째, 등록저하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과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각추구가 대부분의 사람과 유사하거나 (매우) 많은 경우 모든 섭식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각민감성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폭식 및 음식물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회피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은 경우 거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일반여성의 감각처리에 따른 섭식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반 여성의 섭식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각처리를 활용한 중재를 제안하였다. 즉, 그들의 섭식태도 개선을 위해 감각처리를 도울 수 있도록 활동을 제공하는 중재를 적용하는 추후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rown, C. E., & Dunn, W. (2002).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User's manual*. San Antonio: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yun, Y. S., Lee, N. H., & Lee, K. H. (2014). Factors influencing eating problems among Korean university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4), 362–369. <https://doi.org/10.7739/jkafn.2014.21.4.362>
- Cha, B. K. (2017). A pat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eating problem among young female adult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0(6), 615–623. <http://dx.doi.org/10.4163/jnh.2017.50.6.615>
- Chang, M. Y., Kim, Y. G., Kim, T. H., Noh, C. S., Park, K. Y., Lee, H. K., et al. (2017). *Mental health concepts and techniques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5th ed.)*. Seoul: Jungmunkag.
- Cheon, S. H. (2007). A study on eating behavior, depression, anger, anger expression and BAS/BIS in adolesce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4), 310–319.
- Dalley, S. E., & Buunk, A. P. (2011). The motivation to diet in young women: Fear is stronger than h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5), 672–680. <https://doi.org/10.1002/ejsp.816>
- Dunn, W. (2001). The sensations of everyday life: Empirical, theoretical, and pragmatic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6), 608–620. <https://doi.org/10.5014/ajot.55.6.608>
- Foxx, R., Meyer, P., & Rotatori, A. F. (1989). *Obesity and weight regul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80).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10(4), 647–656.
- Halpern, D. F. (2000). *Sex differences in cognitive abilities (3r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ng, E. K., & Lee, H. R. (2018). The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ensory processing feature depending on gende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6(3), 1–10. <http://dx.doi.org/10.18064/JKASI.2018.16.3.001>
- Hwang, R. H. (2009). A study on eating disorder,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4), 328–335.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328>
- Jeon, H. O. (2014). Relations of self-assertiven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abnormal eating attitude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weight control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07–2216.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07>
- Jeong, H. J., & Lee, J. S. (2011). A study on the

- eating attitude and depression and anxiet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Duksung Women's University Student Life Guidance Laboratory*, 27, 37-45.
- Jung, H. R. (2016). *Technical adequacy of Korean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K-AAS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Gimhae-si, Korea.
- Kang, H. G., Jee, Y. G., Kim, S. J., Lim, J. Y., Yoon, H., Jung, W., et al. (2005).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eating attitude in university hospital'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49-158.
- Kang, H. J., Chang, M. Y., & Kim, K. M. (2011).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eating for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9(2), 41-49.
- Kim, K. M. (2000).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ting attitude in the adolescence: Centered in the anorectic eating concerns of the adolescent*.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Kim, M. S., Kim, K. M., Chang, M. Y., & Hong, E. K. (2019). A study on correlation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with feeding of preterm infants and todd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7(2), 31-40. <http://dx.doi.org/10.18064/JKASI.2019.17.2.031>
- Kwon, S. H. (2014). Status of under- and over-nutrition i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Public Health Weekly Report*, 7(48), 1077-1080.
- Lee, G. J., Won, J. S., Im, S. B., Kim, S. A., Kim, S. J., Lee, S., et al. (2011).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Seoul: Sumunsa.
- Lee, J. H., Lee, T. Y., & Kim, Y. R. (2016). Quality of life in Chungcheong area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sensory processing interv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81-88.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81>
- McCabe, M. P., & Vincent, M. A. (2003). The role of bio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disordered eating among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1(4), 315-328. <https://doi.org/10.1002/erv.50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7 National health statistic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7th)*. Cheongju: Author.
- Nakai, Y., Nin, K., & Noma, S. (2014). Eating disorder symptoms among Japanese female students in 1982, 1992, and 2002. *Psychiatry Research*, 219(1), 151-156.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4.05.018>
- Nam, T. G., & Lee, J. H. (2010). Differences of sensory processing abilities of adults by gender.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17(1), 11-21.
- Neal, J. A., Edelman, R. F., & Glachan, M. (2002).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http://dx.doi.org/10.1348/014466502760387489>
- Rhee, M. K., Lee, Y. H., Park, S. H., Sohn, C. H., Chung, Y. C., Hong, S. K., et al. (1998). A standardiz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I: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6(2), 155-175.
- Rierdan, J., & Koff, E. (1997). Weight, weight-related aspects of body image, and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32(127), 615-624.
- Rockwell, L. E. (1990). Frames modalities us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10(2), 47-63.

- https://doi.org/10.1300/J004v10n02_04
- Schaaf, R. C., Miller, L. J., Seawell, D. S., & O'Keefe, S. (2003). Children with disturbances in sensory processing: A pilot study examining the role of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7*(4), 442-449. <https://doi.org/10.5014/ajot.57.4.442>
- Shroff, H., & Thompson, J. K. (2006).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A replication with adolescent girls. *Body Image, 3*(1), 17-23. <https://doi.org/10.1016/j.bodyim.2005.10.004>
- So, W. H. (2000). *Effects of Negative Emotions on Binge eating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Son, E. J. (2008).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hysical comparison,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eating disorder symptoms of college aged wo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885-901.
- Sung, M. H. (2005). Factors influencing eating disorder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8*(1), 71-82.
- Timothy, J. B., & Stacy, L. (2013). The association of body mass index, perceived body mass index, and predictors of eating disorders among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34*(6), 337-342. <https://doi.org/10.1080/19325037.2003.10603574>
- VanBoven, A. M., & Espelage, D. L. (2011). Depressive symptoms, coping strategies,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3), 341-348. <https://doi.org/10.1002/j.1556-6678.2006.tb00413.x>

Abstract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the Average Woman

Moon, Gyu-Lahn*, M.S., O.T., Lee, Chunyeop**, Ph.D., O.T.,

Joo, A-Young***, M.S., O.T., Kwak, Naim****, B.S., O.T., Jung, Hyerim**, Ph.D., O.T.

*Busan Metropolitan Dementia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Dementia Safety Center, Buk-Gu Busan Health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oon Hospital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general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women.

Methods : The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and the Eating Attitude Test (EAT-26) were used to survey 241 women. Their eating attitudes according to the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and the post-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cheffe test.

Results : Among the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except for eating control due to low registration,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due to sensory avoidance, all eating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p < .05$). The anorexic behaviour,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was shown to be negative in cases of those who had much lower registration than most people. All eating attitudes, such as anorexia,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and eating control, were shown to be negative in cases of women whose sensation seeking was equal to or much great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e binge-eating and foodlessness were shown to be negative in cases of high sensory sensitivity. The anorexic behaviour was shown to be negative in cases of elevated sensory avoidance.

Conclusion : Eating attitudes differed depending on the sensory processing characteristics. As such, sensory integration mediation can be proposed as a method of controlling the eating attitudes of women in general.

Key words : Eating Attitude, Sensory Processing, Women